

‘사건 브로커’ 파문 확산...지자체 수주·납품비리 겨냥

광주시점, 22개 시·군에 브로커 관련 업체 7곳 계약 내역 제출 요구 전남 19개 지자체에 수백억대 납품...수의계약도 상당수 이뤄진 듯 공사수주 관여 정황 포착...인사 청탁·수사 무마 비리 이어 수사 확대

검찰이 ‘사건 브로커’의 인사 청탁, 수사 무마에 이어 전남 지역 지자체 공사 수주와 납품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 브로커 A(62)씨가 공사 수주에도 관여(11월 28일자 광주일보 6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이다.
27일 전남 22개 시·군에 따르면 광주지검이 지난 9월 14일 전남 22개 시·군에 ‘수사협조 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다.

이 공문에는 7개 업체가 각 지자체에서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맺은 계약 내역 등을 송부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 8월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당시 ‘지자체 수주 비리와 관련하여도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수사기관 정탁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가상자산 사기 사건 용의자로부터 고가 외제차 등 18억5400만원을 받아 현재 구속된 상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다년간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검·경 인맥을 통해 수사무마를 하고 돈을 받고 경찰인사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는 지자체 공사수주·납품으로 칼끝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전남의 일부 지자체장과 지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시기에 이뤄진 계약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A씨에게 수사 무마를 요청하고 관급공사를 대가로 제공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가 인맥을 활용해 지자체 관급공사에 참여하거나 자재를 납품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 선상에 오른 업체는 고흥, 무안 등 전남 지역에 소재한 7개사다. 이 가운데는 A씨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선 법정에서 현재 운영중이라고 밝힌 자체 납품사도 포함돼 있다.
나머지 6곳은 A씨의 지인과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업체로 리모델링과 목재 데크, 건설, 냉난방 시스템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22개 전남 지자체는 7개 업체의 계약 내용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일보 확인 결과 B업체와 2억원에 달하는 목재데크 자재를 납품계약한 한 전남 지역의 C지자체는 나머지 6개 업체와는 3억원이 넘는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22개 지자체중 7개 업체와 계약을 맺은 지자체는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금액

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중 일부 계약은 조달청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D지자체는 검찰이 계약 현황을 요청한 업체와 16억 4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지만, 이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진 계약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의계약도 상당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업체와 100여건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E지자체의 경우도 일부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광주지검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초기부터 현재까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건 브로커 경찰 연루, 일어나선 안될 일”

한창훈 광주경찰청장 기자간담회

한창훈 광주경찰청장이 사건 브로커 사건에 광주경찰 소속 경찰들이 관련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청장은 27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다”면서 “(검찰이) 수사중인 상황이라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코인사기범 수마 무마의혹으로 지난 2020년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수사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당시 사건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안다”면서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놨다.
최근 광주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지난 6월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외국인 피의자 집단 도주 사건 이후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 도주 사건이 발생했다”며 “무겁게 생각하고 허점이 없게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현행법 체포 시 전담 관리자 지정, 호송차 차단시설 설치 운영, 일선 경찰 관리대책 강화 등을 통해 촘촘한 대책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조직 내 최대 현안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본청의 지침대로 조직개편을 진행 하고 지역치안 수요에 맞춰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력이 대폭 늘어나는 가정 기동순찰대 등은 기존 해체된 방범순찰대 시설 등을 활용해 거점을 마련하고 12월 중에 경찰 장비 등의 배치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 지도 내비쳤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마약류범죄,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 청장은 “국민의 편안함 일상을 지키는 게 경찰의 가장 큰 현안이다”며 “특히 예방 치안에 집중해 광주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올바른 화재 예방법 배우요” 광주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7일 북구청 직원이 원생들에게 올바른 화재예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수의계약 대가 뇌물 받은 전직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수의계약을 빌미로 수차례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뇌물수수액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51)씨 등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60여만원도 부과했다.
전남 모 지자체에서 산림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산림 관련 사업(푸른 숲 조성 등)의 수의계약을 원하는 B산림조합 관계자에게 9차례에 걸쳐 4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태풍 솔릭으로 방조제 주변

소나무가 쓰러지자 복구 작업을 조정회사에 지시한 뒤 공사가 마무리됐음에도 B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산림조합에게 조정회사에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지자체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산림조합 관계자에게 전화해 “쓸 데가 있다. 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해 음식점 등지에서 술값과 향응 비용을 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조합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다른 피고인도 조합을 속여 인건비를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일부 판사 무례한 언행 지적...우수·친절 법관 7명 선정

광주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

재판에서 일부 판사들의 무례한 언행 등 부적절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7일 공개한 '2023년 법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161명을 포함한 법관 456명의 평균 점수는 83.64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에는 광주변호사회 604명의 변호사 중 245명이 참여해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절, 직무능력·성실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20명 이상의 변호사에게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72.15점이다.
변호사회가 제시한 부적절한 사례는 재판 진행,

행동, 언사 등 다양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도 있다고 변호사회는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우수·친절 법관으로 고상영(47·연수원 327) 광주지법 형사1부 부장판사, 김상규(53· / 35기) 광주지법 형사2부 부장판사, 남상아(41· / 40기)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남요섭(39·번시 2회) 광주지법 장흥지원 판사, 박상현(51·연수원 327) 광주지법 행정1부 부장판사, 박현수(55· / 31기)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정의정(43· / 35기) 광주지법 형사2부 부장판사를 선정했다. 박상현 부장판사는 3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고상영·정의정 부장판사는 두 번째 우수법관에 뽑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외국인 전용 노래방서 마약 파티 광주경찰, 베트남인 12명 검거

광주도심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외국인 12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등 1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6일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 광주시 광산구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래방 종업원이 마약을 유통·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 단속을 펼쳐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베트남인 남녀 10명은 생일파티를 하기 위해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